

[프리뷰] 제주를 제물삼아 리그 2연패 굳힌다.

12년만의 K리그 2연패에 도전하는 전북에게 이제 남은 승점은 단 8점
제주전 5연승 달성으로 매직넘버를 3에서 2로 줄이고 조기 우승에 다가간다.

▶ 관련기사 2면

전 세계가 인정한 전북의 명품 클럽하우스

전북 클럽하우스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영예
4월 세계적 건축 웹진 아키타이저의 2015 A+ Award 선정에 이은 두 번째 쾌거

▶ 관련기사 6면



전북현대모터스FC 공식 매치데이 매거진

THE DAKGONG



facebook.com/
JHMFC

발행_전북현대모터스FC(주) | 제작_전북축구가야기 | 편집장_김진규

2015년 10월 04일(일) | VOL.06 | FREE



**이동국, 광주전 멀티골
K리그 최고령 득점왕에 도전한다**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득점왕을) 노려볼 생각이다."

전북 현대는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에서 광주FC를 2-1로 꺾었다. 21승 5무 6패가 된 전북은 수원과 승점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공고히 했다.

승리의 주인공은 이동국이다. 전북은 전반 35분 김호남에게 선제골

을 허용했지만, 전반 37분과 후반 45분 연속골을 기록한 이동국의 맹활약을 앞세워 승부를 뒤집었다. 13호골을 신고한 이동국은 득점 선두 김신욱과 득점차를 1골로 좁혔다.

경기 후 이동국은 "그라운드 사정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왔는데, 실제로 뛰어보니 너무 안 좋았다. 이런 잔디에서 경기를 해야 한다는 사

실이 안타깝다"면서 "잔디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승점 3점을 챙겨서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최근 3경기 4골을 기록하며 물 오른 득점 감각을 자랑 중인 이동국은 "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좌절됐

기 때문에 K리그 클래식에 더 집중하게 됐다. 조기 우승을 위해서 준비를 더 하겠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009년 이후 6년 만에 득점왕을 노리고 있는 이동국은 "지난 시즌 부상으로 득점왕을 놓친 아쉬움이 있었다.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 페이스가 좋기 때문에 노려볼 생각이다"면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www.iffе.or.kr

13th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2015. 10. 22-10. 26 전주월드컵경기장





Photo: K리그닷컴

제주를 제물삼아 리그 2연패 굳힌다

조기 우승을 위해서는 상승세의 유지가 필수다. 전북 현대에게 제주 원정 경기가 중요한 이유다.

전북현대대는 4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현대 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3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스플릿 이전 마지막 라운드인 이번 경기에서 전북은 K리그 클래식 2연패 조기 확정에 한 발 다가선다는 각오다.

3연승의 상승세를 앞세워 K리그 클래식 2연패 매직넘버 2로 줄인다.

6경기를 남겨둔 현재 2위 수원의 승점 차는 11점. 수원의 경기 결과와 상관 없이 자력으로 우승을 하기 위해 필요한 승점은 8점으로 K리그 클래식 2연패에 성공 다가섰다.

제주전 최근 '4전 전승 8골 무실점' 제주전 연승으로 조기 우승 다가선다

전북은 정규리그 일정이 끝날 때까지 우승을 미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전북 최강희 감독은 조기 우승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시즌을 일찌감치 끝내고 다음 시즌에 대한 구상을 하려는 것이다. 출전 경험이 적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조기 우승이 필요하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AFC 챔피언스리그 8강 탈락의 아픔을 겪었지만, 이후 대전과의 홈경기와 광주를 상대로 한 원정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K리그 클래식 조기 우승으로 빠르게 목표 전환에 성공한 셈이다.

승리의 보증수표 제주전. 연승행진은 계속되어야한다.

전북은 최근 제주를 상대로 4연승을 기록하고 있다. 연승행진기간 전북은 8골을 넣은 반면 단 한 골도 허용 하지 않은, 결과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완벽한 그야말로 '완승'이었다.

제주전 연승이 더욱 의미있었던 것은 전북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기록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마지막 맞대결에서는 세 번째 K리그 우승 확정을, 올 시즌 첫 번째 맞대결에서는 '22연속 무패'라는 K리그 신기록을 수립한 바 있다.

따라서 제주전 연승행진을 이어 상승세를 우승이 확정될 스플릿 이후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력이 강한 1~6위 팀과 대결을 펼쳐야 하는 전북은 모든 것을 최상의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좋은 팀 분위기는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제주 원정경기는 상승세를 상위 팀과 대결로 이어가는 연결고리가 돼야 한다. 최 감독은 "스플릿 전까지 남은 경기에서 모두 승점 3점을 따야 한다. 그래야 스플릿 이후에도 좋은 경기와 성적을 낼 수 있다"며 제주전 필승 의지를 다졌다.

승리의 보증수표 제주를 다시 한번 꺾고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주 원정에서 오오렐레를 연호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위 - 21승 5무 6패 **전북현대모터스**

이는 예상 라인업으로 실제 라인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록	관전 포인트
29R 울산 A 0:2 L	- 최근 對 제주 4연승
30R 서울 H 3:0 V	- 제주 원정 연속 3-0 완승
8강 감바 A 2:3 L	- 이동국, 리그 3경기 연속골
31R 대전 H 3:1 V	- 김기희, 이재성 휴식 효과
32R 광주 A 2:1 V	- 매직넘버 '3' → '2'로

K리그 클래식 33R

역대 전 적

37승 (49%)
23패 (30%)
16무 (21%)

K리그 통산 37승 16무 23패

— 최근 상대 전적 —

14/07/09 - 전북 1:1 제주
14/10/01 - 전북 2:0 제주
14/11/08 - 제주 0:3 전북
15/04/18 - 전북 1:0 제주
15/07/11 - 제주 0:3 전북

제주유나이티드 7위 - 12승 7무 13패

이는 예상 라인업으로 실제 라인업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5경기 기록	관전 포인트
28R 서울 H 2:1 V	- 6위 인천과 승점 2점차
29R 대전 A 4:2 V	- 까랑가 멀티골(32R 부상전)
30R 울산 H 2:2 D	
31R 포항 H 0:1 L	
32R 부산 A 2:0 V	

제주전의 흥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35라운드

제주의 비바람속에서 이뤄낸 V3
3-0 완승! 3번째 우승 확정

0	제주유나이티드	3
2014/11/08 16:00 제주월드컵, 서귀포		
출전선수 명단		
1 김호준 GK	GK 권순태 1	
5 오반석 DF	DF 윌킨슨 18	
15 알렉스 DF	MF 신형민 22	
22 김수범 DF	DF 이주용 32	
37 장은규 MF	DF 김기희 3	
→ 6 황도연	DF 이규로 2	
14 윤빛가람 MF	→ 최보경 6	
19 드로켓 MF	MF 김남일 55	
→ 9 김현	→ 한교원 7	
10 송진형 FW	MF 레오나르도 10	
→ 4 박수창	MF 이승기 11	
25 이현호 DF	MF 이재성 17	
11 황일수 FW	FW 카이오 9	
13 배일환 FW	→ 이상협 16	
득점자		
전 27' 레오나르도		
후 4' 이승기		
후 41' 이상협		



전북 현대가 레오나르도의 프리킥 결승골에 힘입어 제주 유나이티드를 제압하고 통산 3회 우승을 달성했다.

최강희 감독이 지휘하는 전북은 8일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5라운드 제주와 원정경기서 3-0으로 승리를 거뒀다. 최근 7연승 및 12경기 연속 무패(9승 3무)를 달린 전북은 22승 8무 5패(승점 74)를 기록,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2위 수원 삼성(승점 61)을 제치고 K리그 클래식 우승을 확정지었다. 전북의 리그 우승은 2009년과 2011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다.

우승까지 승점 3점을 남겨둔 전북은 전반 초반부터 거센 공격을 펼치

며 제주를 압박했다. 제주는 전북의 압박에 중원에서부터 밀리며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반면 전북은 전반 5분 레오나르도의 슈팅부터 제주의 골문을 위협하며 지속적인 득점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 20분에는 이재성의 날카로운 왼발 슈팅이 제주 수비수에 맞고 골라인을 벗어났고, 이어진 코너킥에서 윌킨슨의 슈팅은 크로스바 위를 살짝 넘어갔다.

하지만 제주가 언제까지나 버틸 수는 없었다. 전북의 계속된 공격에 제주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전북은 프리킥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전반 27분 아크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레오나르도가 오른발 슈팅으로 제주

의 골망을 갈랐다. 이후 전북은 제주 수비수 알렉스의 퇴장으로 얻은 수적 우세까지 접한 전북은 1-0으로 기분 좋게 전반을 마무리했다.

후반들어 전북은 수적 우세를 심분 활용했다. 후반 4분 만에 레오나르도가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이승기가 정확한 왼발 발리 슈팅으로 팀에 추가골을 안기며 점수차는 더욱 벌어졌다. 전북은 후반 중반 이후 조급해진 제주를 상대로 점유율을 더욱 높여가며 공세를 강화했고, 후반 41분 이상협이 김기희의 크로스를 추가 골로 연결해 승리에 쐬기를 박았다.

이날 승리로 전북은 조기에 V3를 확정짓는데 성공했다.

제주전의 비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4 7라운드

혹독한 일정에 발목잡힌 전북, 시즌 첫 0패.

혹독한 일정에 시달리고 있는 전북이 제주 원정에서 패배를 당했다.

최강희 감독이 지휘하는 전북은 9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7라운드 제주 유나이티드와 원정경기서 0-2로 패배했다. 제주 원정 2연승을 달리던 전북은 연승 행진이 끊기면서 3승 2무 2패(승점 11)가 돼 5위로 떨어졌다.

지난 2일 ACL 광저우전과 6일 서울로 이어지는 강행군속에 또다시 주중 K리그 클래식 경기를 갖게 된 전북은 공격진을 다르게 구성해 선발로 내세웠다. 이틀 휴식 후 경기라는 혹독한 일정을 앞으로 2경기나 더 해야 하는 만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전반 초반 주도권을 잡은 쪽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점유율에서 제주에 다소 밀렸지만, 효과적인 공격 전개로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었다. 반면 제주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려 했지만, 전북의 수비진을 뚫고 골문을 위협할 만한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경기 균형은 후반 8분 윤빛가람에게 선취골을 허용하며 무너졌다. 실점 이후 전북은 이동국, 레오나르도, 한교원을 연이어 투입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공세를 펼쳤다. 그 러나 슈팅은 번번이 골문을 외면했고, 후반 27분 김현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하며 0-2. 시즌 첫 0패를 기록하고 말았다.

2	제주유나이티드	0
2014/04/09 19:00 제주월드컵, 서귀포		
출전선수 명단		
1 김호준 GK	GK 권순태 1	
24 이음 DF	DF 윌킨슨 18	
5 오반석 DF	DF 최철순 25	
15 알렉스 DF	MF 정혁 15	
2 정다형 DF	DF 이규로 2	
8 오승범 MF	DF 김기희 4	
14 윤빛가람 MF	DF 최보경 6	
10 송진형 MF	→ 레오나르도 10	
→ 20 예스틴엔	MF 이재성 17	
19 드로켓 MF	MF 김인성 13	
13 배일환 FW	→ 이동국 20	
→ 4 강준우	MF 김신 26	
9 김현 FW	→ 한교원 7	
→ 19 진대성	FW 이상협 16	
득점자		
후반 8' 김현		
후반 27' 배일환		

따끈따끈하고 다양한 전북현대 소식
'THE DAKGONG'



전북현대 공식 매거진 '더 닥공'은
초록이네에 있습니다

누비온 협동조합
전북축구이야기 | 내일은 K리그



돌아온 슈퍼맨 이동국, 대박 두 골!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2015 32라운드
광주월드컵경기장 - 2015/09/23 19:00

35' 김호남  **1** **2**  37' 이동국
90' 이동국

광주FC 전북현대

주심	부심	대기심	Man of the Match	관중
김희곤	최민병 / 송봉근	매호영	이동국	2,233명

선발명단

41 최봉진
4 정준연
3 김영빈
26 안영규
6 오도현
14 이요뜸
40 이찬동
5 임선영
16 송승민
11 김호남
10 파비오



선발명단

1 권순태
3 김형일
16 조성환
25 최철순
32 이주용
6 최보경
7 한교원
34 장운호
33 이근호
20 이동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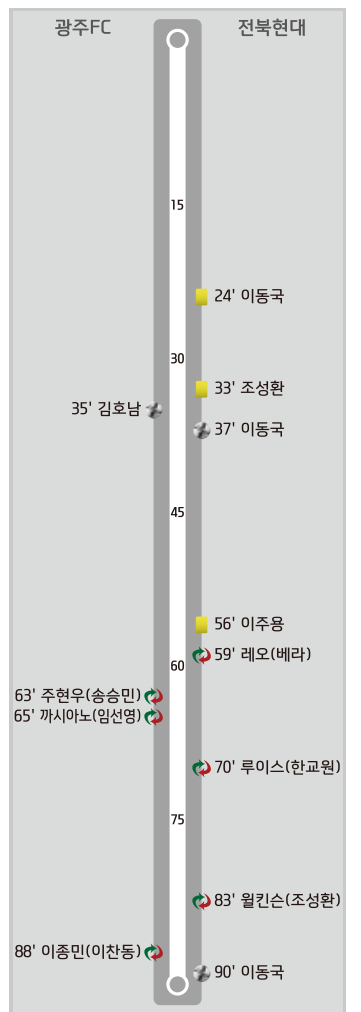
교체명단

1 제종현
17 이종민
13 어재녕
19 박선홍
28 김의신
30 주현우
36 까시아노

득점	2
점유율	50.7
슈팅	9
유효슈팅	5
파울	17
경고	3
퇴장	0
코너킥	8
프리킥	20

교체명단

21 홍정남
19 박원재
18 윌킨슨
8 루이스
10 레오나르도
23 김동찬
11 이승현



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

G: 득점, A: 도움, C: 무실점
※ 선수 기록은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경기에 한함 ※

1 권순태 1984/09/11 184cm/85kg 30경기 10C	5 이호 1984/10/22 183cm/76kg 9경기	8 루이스 1981/07/02 169cm/78kg 10경기 1G 2A	11 이승현 1985/07/25 176cm/70kg 10경기	17 이재성 1992/08/10 180cm/70kg 28경기 5G 5A	20 이동국 1979/04/29 187cm/83kg 28경기 13G 4A
3 김형일 1984/04/27 187cm/83kg 20경기	6 최보경 1988/04/12 184cm/79kg 22경기	9 우르코 베라 1987/05/14 189cm/86kg 6경기	13 정훈 1985/08/31 175cm/70kg 17경기 1A	18 윌킨슨 1984/08/13 187cm/83kg 16경기	21 홍정남 1988/05/21 186cm/79kg 2경기
4 김기희 1989/07/13 188cm/80kg 27경기	7 한교원 1990/06/15 182cm/73kg 21경기 1G 4A	10 레오나르도 1986/09/22 173cm/70kg 32경기 10G 3A	16 조성환 1982/04/09 184cm/78kg 17경기	19 박원재 1984/05/28 175cm/69kg 6경기	23 김동찬 1986/04/19 169cm/68kg 12경기 2A

전북, 광주에 2-1. 극적인 역전승

기자회견실에서 날아온 메시지

최강희 감독

그럼에도 선수들이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해서 이길 수 있었다. 우승을 빨리 결정을 짓고 싶다. 어차피 스플릿 이후에는 수원과 경기를 한 번 더 해야 한다. 지금 분위기라면 스플릿 이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5/09/23

no.20 이동국(대박이 아바)

득점왕은 매 시즌 욕심 난다. 지난해 부상으로 하지 못해 아쉽다. 올해는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본다. 페이스가 좋아 노력할 생각이다.

2015/09/23

이동국이 13호골을 가동하며 득점왕 경쟁에 합류했다. 이동국의 활약에 전북도 승진보를 전했다.

최강희 감독이 지휘하는 전북 현대는 23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2라운드 광주 FC와 원정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전북은 전반 35분 김호남에게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전반 37분과 후반 45분 이동국이 연속골을 넣어 승부를 뒤집었다.

21승 5무 6패(승점 68)가 된 전북은 2위 수원 삼성(승점 57)과 승점 차를 유지하며 선두를 공고히 했다. 광주는 8승 11무 12패(승점 35)로 10위에 머물렀다

전북과 광주 모두 승점 11점이 필요했다. 전북은 K리그 클래식 우승, 광주는 K리그 클래식 잔류 확정을 자력으로 이루기 위해 필요했다. 그만큼 물러설 수 없었다. 조기 우승을 원하는 최강희 감독은 “원정이지만 비기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광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초반은 탐색전이 펼쳐졌다. 전북은 이동국과 우르코 베라를 앞세워 공격에 나섰고, 광주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전북의 수비 뒷공간을 노렸다. 그러나 재미를 보지 못했다. 전북은 안정된 수비를 구축한 광주에 막혔고, 광주는 전북의 수비 뒷공간을 공략하지 못했다.

팽팽한 균형이 흔들린 건 중반부터였다. 광주가 전반 35분 선제골을 넣었다. 임선영의 침투 패스를 받은 김호남이 골키퍼와 일대일 기회를 잡아 득점으로 연결했다.

선제 실점을 했지만 전북은 당황하지 않았다. 불과 2분 만에 골을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북은 한교원의 전진 패스를 이동국이 박스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해 광주의 골문을 흔들었다.

후반 들어 전북과 광주는 승부수를 던졌다. 전북은 후반 14분 우르코 베라를 빼고 레오나르도를 투입해 활기를 불어 넣었다. 광주도 후반 18분 송승민을 빼고 주현우를 넣어 공격진에 변화를 꾀했다.

하지만 양 팀 모두 재미를 보지 못했다. 교체로 변화를 더 줄 수밖에 없었다. 전북은 후반 25분 한교원을 빼고 루이스를, 후반 38분 조성환 대신 월킨슨을 넣었다. 광주도 후반 20분 임선영 대신 까시아노, 후반 43분 이찬동 대신 이종민을 넣었다.

선수 교체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쪽은 전북이었다. 전북은 동점골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던 이동국이 결승골을 신고하며 승리 소식을 알렸다. 이동국은 레오나르도가 내준 패스를 아크 정면에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광주의 골망을 갈랐다. 승부에 마침표를 찍는 득점포였다.

순위	팀	승	무	패	승점
1	전북	21	5	6	68
2	수원	16	9	7	57
3	포항	14	11	7	53
4	성남	13	12	7	51
5	서울	14	9	9	51
6	인천	12	9	11	45
7	제주	12	7	13	43
8	전남	10	12	10	42
9	울산	9	12	11	39
10	광주	8	11	13	35
11	부산	5	9	18	24
12	대전	2	6	24	12

순위	선수명	소속	득점	경기
1	김신욱	울산	14	32
2	아드리아노	서울	13	25
3	이동국	전북	13	28
4	황의조	성남	12	28
5	에두	전북	11	20
6	스테보	전남	11	30
7	로페즈	제주	10	29
8	레오나르도	전북	10	32
9	오르샤	전남	9	28
10	산토스	수원	8	23
11	웨슬리	부산	8	26
12	이종호	전남	8	27



최악의 그라운드 사정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전북, 결국 후반 14분 레오나르도를 투입하며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그러나 해결사는 이동국이었다. 이동국은 후반 종료 직전 골문 구석을 찌르는 중거리슈팅으로 균형을 무너트렸다.



결국 극적인 역전골로 2-1 승리를 거둔 전북. 빗속에서도 뜨거운 응원전을 펼친 MGB와 함께 오오렐레를 연호했다.

전북현대모터스FC 선수단

24 유창현		27 이승렬		31 김태호		34 장운호		37 이원우		47 문상윤	
FW	1985/05/14 181cm/75kg 7경기 2G	FW	1989/03/06 182cm/74kg 2경기	GK	1992/06/05 186cm/81kg	MF	1996/08/25 178cm/68kg 9경기 2G	DF	1996/03/07 181cm/75kg	MF	1991/01/09 178cm/75kg 8경기 2A
25 최철순		29 이규로		32 이주용		35 옹동균		41 황병근			
DF	1987/02/08 173cm/70kg 23경기	DF	1988/08/20 180cm/68kg 1경기	MF	1992/09/26 180cm/76kg 17경기 1G	DF	1991/11/23 175cm/67kg 1경기	GK	1994/06/14 193cm/93kg		
26 이재명		30 김영찬		33 이근호		36 고민국		44 김재환			
MF	1991/07/25 182cm/74kg 3경기 1G	FW	1990/06/15 182cm/73kg 4경기	FW	1985/04/11 182cm/75kg 9경기 2G 1A	DF	1993/05/10 183cm/76kg	DF	1988/05/27 184cm/76kg		

G: 득점, A: 도움, C: 무실점
※ 선수 기록은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경기에 한함 ※



역시 명품! 클럽하우스, 대통령상 수상



PHOTO: 구단제공

전북현대의 클럽하우스가 명품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뽐냈다.

전북현대 클럽하우스는 '2015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준공건축물 민간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국건축문화대상은 1992년부터 국토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주)서울경제

신문이 공동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 시상식이다.

전북현대의 클럽하우스가 인정을 받은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4월 세계적인 건축 웹진 아키타이저가 주최하는 2015 A+ Award의 팬 투표 부문에서 전북현대의 클럽하우스가 최

종 선정돼 해외에서 세계적인 명품 건축물로 주목 받은 바 있다.

전북현대의 클럽하우스는 1년여의 사전 조사 및 건축설계 단계를 거쳐 기존 천연잔디 2면의 훈련장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과 실내 연습구장 등 연면적 2414평의 공사로 3년여 만에 완공돼 2013년 10월 오픈했다.

국내·외 유명 클럽 하우스를 방문해 장점들을 모두 모아 만든 전북현대 클럽하우스는 눈길을 사로잡는 외관뿐만 아니라, 선수단 편의를 위한 선수단 숙소, 훈련, 재활 및 치료시설을 갖춘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이 자랑거리이다.

이철근 단장은 "클럽하우스가 해외에 이어 국내에서도 인정이 기쁘다"며 "올해도 K리그 클래식 우승컵을 들어 올려 훌륭한 선물을 준 모기업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U-20 WC 전주 유치 1등 공신

전북 현대가 전주시와 상생을 통해 2017 FIFA U-20 월드컵 전주 유치를 이끌어냈다. 그 중심에는 명품 클럽하우스가 있었다.

전주시 FIFA U-20 월드컵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FIFA는 2017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U-20 월드컵 개최 도시 6곳을 발표했다. FIFA는 전주를 비롯해 천안, 대전, 인천, 제주, 수원이 선정됐다.

전주시는 대회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의지만 가지고 유치할 수는 없었다. FIFA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 시설과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축구

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주시의 여건은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문제는 훈련장이었다. FIFA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연습장이 도내에 한 곳도 없었던 것이다. 마땅한 대책이 없는 전주는 전북을 찾아가 훈련 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회 기간 시즌을 소화해야 하는 전북 입장에서는 무리한 부탁이었다.

그럼에도 전북은 흔쾌히 수락했다. 지난 21년 동안 전주 시민들의 응원을 받은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이유서였다. 훈련시설 뿐 아니라 축구열기를 조성한 전북은 이번 유치전 승리의 1등 공신이었다.



PHOTO: 구단제공

장윤호, 첫 주간 베스트

대전전 썬기골의 주인공 장윤호가 데뷔 첫 주간 베스트에 올랐다.

프로축구연맹은 "폭넓은 활동량과 정확한 패스 연결,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새로운 해결사에 등극했다"며 장윤호를 평가했다.

1골 1도움의 이근호 역시 "빠른 움직임과 침착한 플레이로 뛰어난 경기력을 발휘했다"며 이름을 올렸다.

권순태-김기희-이재성, 10월 A매치 명단 포함



PHOTO: 구단제공

전북 현대의 골키퍼 권순태, 수비수 김기희, 미드필더 이재성이 10월 A매치 명단에 포함됐다.

대한축구협회가 10월 A매치를 위해 23명의 선수를 소집한다. 29일 대한축구협회는 10월 8일 쿠웨이트를 상대로 한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아지역 2차 예선과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질 자메이카와 친선 경기를 위한 23명의 소집 명단과 7명의 예비 명단을 발표했다.

전북에서는 지난 라오스전에서 A매치전을 치른 권순태가 다시 한 번 이름을 올린 가운데, 대표팀 터줏대감 이재성과 김기희 역시 이번 명단에 포함되었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이번 쿠웨이트 원정경기는 G조에서 1위를 굳힐 수 있는 중요한 경기다. 쿠웨이트는 현재 우리 조 상대팀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대다. 레바논전 이상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하며 선전을 다짐했다.

대표팀 소집명단 중 K리그 소속 선수들은 10월 5일 인천공항에 소집돼 쿠웨이트로 출국하며, 해외리그 선수들은 쿠웨이트로 바로 소집된다.

- ▲ 10월 A매치 소집 명단
- GK: 권순태, 정성룡, 김승규
- DF: 김기희, 김진수, 박주호, 김영권, 곽태휘, 홍정호, 장현수, 김창수
- MF: 이재성, 권창훈, 한국영, 기성용, 정우영, 손흥민, 황희조, 구자철, 남태희, 이철용
- FW: 지동원, 석현준
- ▲ 대기 명단
- 구성윤, 임창우, 김주영, 홍철, 김승대, 김민우, 김신욱



'2015 adidas K League Junior 전북 U-18(전주 영생고) V 포항 U-18(포항제철고)

좀처럼 따라주지 않은 골문과 스틸타카에 당한 전북 U-18 포항 U-18에 0-5 완패. 설욕 실패



야 저리 비켜 16강행이 좌절되자 주장 류정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4라운드 경남 U-18(진주교)전 완승의 상승세를 잊지 못했다.

전북 U-18(전주 영생고)은 19일 전주월드컵보조구장에서 펼쳐진 '아디다스 K리그 주니어 후기리그 5라운드 경기에서 포항 U-18(포항제철고)에 0-5로 완패했다. 전기리그 완패. 그리고 챔피언십 통한의 무승부까지 올 시즌 내내 포항에게 발목 잡혔던 만큼 이번 후기리그에서 설욕에 나섰지만, 또다시 완패를 당하며 설욕을 내년으로 미뤄야만 했다.

경기는 초반부터 뜨거운 공방전으로 펼쳐졌다. 전북은 전반 10분 박정호의 강력한 프리킥으로 포문을 열었으나, 일명 '스틸타카'를 앞세운 포

항 특유의 패시플레이에 고전을 하기 시작했다. 전북은 전반 16분 골키퍼 이재형이 연이은 세 번의 결정적인 슈팅을 모두 막아내는 선방쇼를 펼치며 포항 공격을 무력화시키는데 힘썼으나 전반 21분 결국 선제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반격에 나선 전북은 경기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반격에 나섰다. 지난 라운드에서 다득점을 기록한 경기력은 포항을 상대로도 나타났다. 그러나 문제는 골문이었다. 전반 24분 홍정욱이 내준 볼을 조준수가 슈팅으로 마무리했으나 수비 맞고 굴절되었고, 이어진 코너킥에서 주장 류정규의 슈팅이 골라인 바로 앞에서 포항 골

키퍼 손 끝에 걸려 무산되고 말았다. 전북은 전반 종료 때 까지 이어간 공세에도 불구하고 끝내 포항의 골문을 열지 못한 채 전반을 0-0으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후반들어 전북은 라인을 더욱 끌어 올려 만회골을 노렸다. 그러나 후반 시작 4분만에 상대 역습에 추가골을 허용하는 등 경기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후반 10분 박정호가 또다시 대포알 프리킥으로 상대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으나 이어진 기회를 모두 무산시키며 추격에 실패했다. 오히려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며 또다시 실점. 점수차는 0-3으로 더욱 벌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조급해진 전북과 달리 포항은 여유가 넘었다. 점유율은 전북이 높게 가져가면서 공은 주로 포항 진영에서 머물렀지만 굳게 잠긴 포항의 골문은 열기에 여부족이었다. 반격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전북은 경기 종료 직전 연이은 역습에서 두 골을 더 허용하며 0-5로 경기를 내주고 말았다.

비록 따라주지 않은 골문으로 인해 경기 결과만 보면 0-5 완패를 당했으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경기를 내줬던 후기리그 초반 경기들과 달리 원활한 공격전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앞으로 남은 잔여 경기에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했다.

순위	팀	승	무	패	승점
1	포항 U-18	5	0	0	15
2	울산 U-18	3	1	1	10
3	광주 U-18	3	0	2	9
4	상주 U-18	2	1	2	7
5	부산 U-18	2	1	1	7
6	대전 U-18	2	0	2	6
7	전남 U-18	2	0	2	6
8	충주 U-18	1	2	2	5
9	전북 U-18	1	1	3	4
10	경남 U-18	1	0	3	3
11	대구 U-18	0	0	4	0

순위	팀	승	무	패	승점
1	완주중	9	0	1	27
2	전북 U-15	9	0	1	27
3	이리동중	8	0	2	24
4	신태인중	6	2	2	20
5	해성중	5	1	4	16
6	고창중	4	3	3	15
7	이평FC	3	1	6	10
8	완주FC	2	2	6	8
9	군산제일중	2	0	8	6
10	고창북중	1	2	7	5
11	단풍미인	0	1	9	1

순위	팀	승	무	패	승점
1	조촌초	11	0	0	33
2	스포츠박스	8	2	1	26
3	전북 U-12	8	1	2	25
4	문화초	6	2	3	20
5	구암초	6	2	3	20
6	부안초	5	2	4	17
7	이리동초	4	4	3	16
8	스포츠제이	4	0	7	12
9	익산Jr	3	2	6	11
10	완산FC	2	1	8	7
11	봉동초	1	0	10	3
12	최진철교실	0	0	11	0

[U-15] 승자승에 밀려 준우승



전북 U-15가 완주중과의 승자승 열세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전북 U-15(금산중)는 19일 지사울구장에서 펼쳐진 '2015 전국중등리그' 전북권역 최종전에서 조성국, 이용국, 나경민의 연속골과 상대 자책골을 보태 고창북중을 4-0으로 완패했다. 그러나 완주중에 상대전적에서 밀려 창단 첫 권역 우승의 꿈은 내년으로 미뤄야만 했다.

전북 U-15에게 유일한 아쉬움이 라면 역시 완주중에 당한 패배다. 전북 U-15는 창단 첫 해부터 전국대회 저학년부 우승을 휩쓸며 이어 올 겨울에도 협회장배 우승을 차지하며 창단 첫 리그 우승은 따 놓은 당상처럼 보였다. 그러나 권역 5연패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작성하고 있던 완주중은 역시 만만히 볼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2라운드 맞대결에서 전북 U-15는 1-2로 패했고, 승자승 원칙에 따라 우승컵을 내주고 말았다.

비록 준우승에 머물렀지만 36골 4실점이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리그의 지배자는 단연 전북 U-15였다. 김수현은 9경기에서 9골을 기록하며 리그 득점왕에 올라 창단 첫 득점왕의 주인공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U-12] 왕중왕전 진출 실패



전북 U-12가 끝내 왕중왕전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전북 U-12는 19일 부안초에서 펼쳐진 '2015 전국초등리그' 전북권역 최종전에서 2위 스포츠박스와 0-0 무승부에 그쳤다. 3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한 전북 U-12는 3위로 시즌을 마쳐 왕중왕전 진출이 좌절되었다.

무엇보다 뒷심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시즌 초반 무실점 연전연승을

파죽지세를 달리던 전북 U-12는 6월 27일 조촌초와 1.2위 맞대결에서 0-2로 완패하며 기세가 한 풀 꺾였다. 경기 중 발생한 주축선수들의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한 패배였던 만큼 아쉬움이 더욱 짙게 남았다.

시즌 첫 패배의 충격은 여름 휴식기 이후에도 이어졌다. 부안초에 0-2 완패를 당한 것. 상대 주축 공격수 이훈민을 막지 못한 것이 뼈아팠다. 2연패를 기록한 사이 연승을 이어간 스포츠박스에 왕중왕전 진출권이 걸려 있는 2위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전북 U-12는 2위를 탈환하기 위해 스포츠박스와 최종전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모였으나 끝내 스포츠박스의 골문을 열지 못한 채 0-0으로 마무리하며 역전에 실패했다.



전주국제 발효식품 엑스포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생명을
살리는 발효

IFFE 13th

Since 2003 International
Fermented Food Expo

2015. 10. 22^{THU} - 10. 26^{MON}
전주월드컵경기장
Jeonju World Cup Stadium



www.iffе.or.kr

